



##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 미니 프로젝트

기획 및 비주얼 맵핑: 이 순영 (트렌드 전문가)  
류혜진 (트렌드 리서처)

취재 및 사진/ 글: 류혜진



테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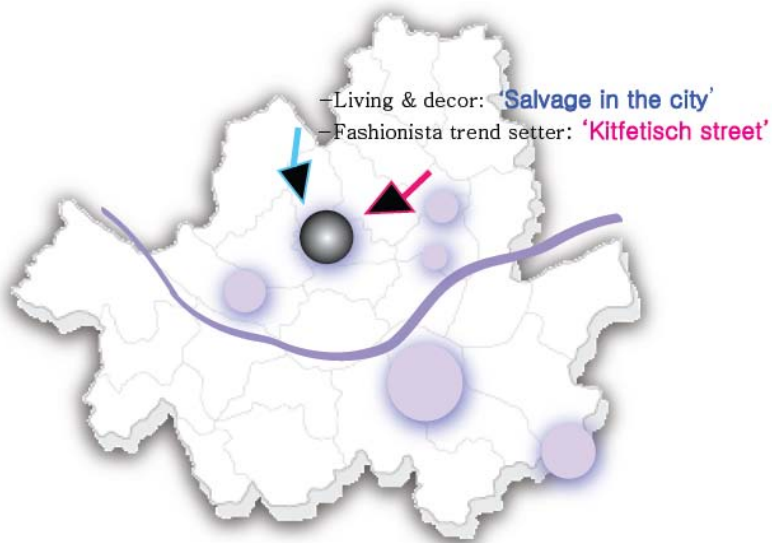
-제1편-

# Salvage in the city

샐비지 인더 시티

# Trend local mapping

## Samchung dong



### 기획의도

시티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획 진행된 미니 프로젝트는 삼청동, 가로수길, 청담동, 정자동 등 도심지 속 특정 거리문화가 리딩 (leading) 되는 곳만을 포커스 한다. 제3의 문화로 인정받는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아웃도어 라이프를 분석하고 동시대적 어센티시티 (authenticity)와 스타일 등을 정립하여 거리에 숨어있는 수많은 트렌디 (trendy) 요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구역마다 특정 아웃도어 라이프와 컬러를 분석하여 트렌드 키워드를 도출한다.



### What's "salvage in the city"...?

샐비지(salvage)란, 난파된 보물섬과 같은 온갖 값진 것들이 집합적으로 모여있는 리빙 공간을 의미하는 키워드이다. 엔틱, 컨템포러리 카펫 (contemporary carpet), 로맨틱한 샹드리에, 싸구려 예술품 등... 샐비지는 복합적 문화요소와 시대적 레퍼런스 (reference)가 융합된 새로운 심미성을 연출한다. 갇혀진 공간이 아닌 열린 거리에서 보여지는 샐비지 무드가 삼청동 스트리트에 in-outdoor 룩으로 지배된다.

‘삼청동은 샐비지 보물창고다(?)’

## Salvage History of “삼청동”…?

면적 1.49km<sup>2</sup>, 인구 5374명(2001)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속한 동이다. 북악산 남동쪽에 있으며, 동쪽은 명륜동, 서쪽으로 청운동·부암동, 남쪽은 세종로동·팔판동·화동·가회동, 북쪽은 성북동과 접해 있다.

동 이름은 이곳에 도교(道敎)의 태청(太淸)·상청(上淸)·옥청(玉淸) 3위(位)를 모신 삼청전(三淸殿)이 있었던 데서 유래되었다. 삼청전의 제사는 소격서(昭格署)에서 맡았다. 다른 유래로는 산과 물이 맑고, 인심 또한 맑고 좋다고 하여 삼청(三淸)이라고 하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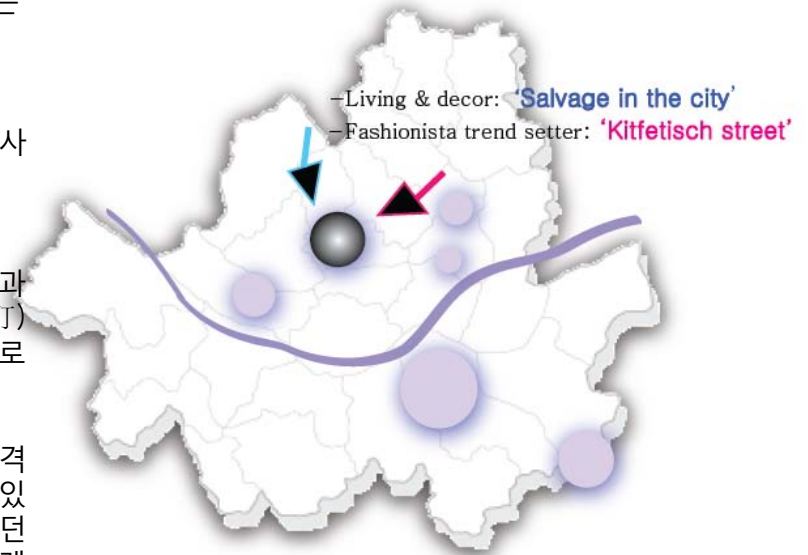
조선 초에는 한성부 북부 진장방(鎭長坊) 지역이었다. 1914년 삼청동과 팔판동(八判洞) 일부를 합쳐 삼청동이라 하였고, 1936년 삼청정(三淸町)으로 바뀌었다. 1943년 종로구에 편입되었고, 1946년 다시 삼청동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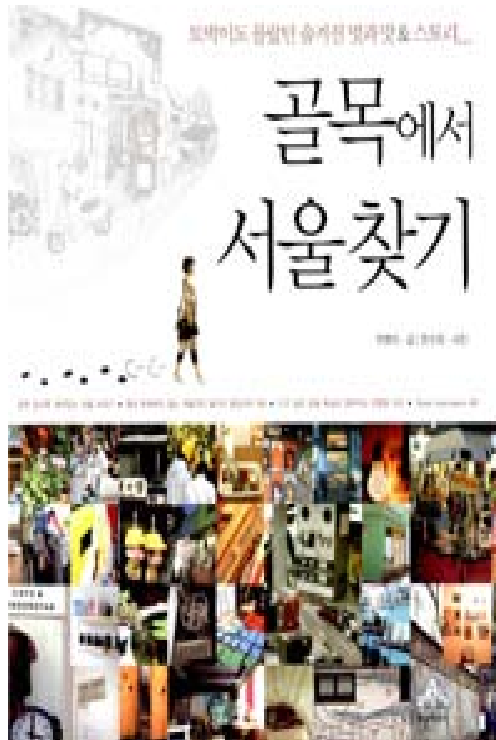
행정동인 삼청동은 법정동인 삼청동·팔판동(八判洞)·안국동(安國洞)·소격동(昭格洞)·화동(花洞)·사간동(司諫洞)·송현동(松峴洞)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융연수원 자리에는 조선 말 고종 때 기기국(機器局)의 무기고였던 번사창(飜沙廠:서울유형문화재 51)이 있으며, 삼청공원은 1940년 도시계획공원 제1호로 지정되었다. 공원 안에는 정몽주 시조비가 있다.

경복궁의 북동쪽에 있는 팔판동은 조선시대에 8명의 판서(判書)가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북쪽에 있는 안국동은 조선 초부터 이 일대가 안국방(安國坊)이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8번지에는 윤보선(尹潽善) 전 대통령이 살았던 공덕귀가(孔德貴家)가 지방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화동은 조선시대에 화초를 기르던 관아인 장원서(掌苑署)에서 동 이름이 유래되었다. 정독도서관 내에는 조선시대 왕가의 족친(族親) 관계의 일을 맡아 보던 관청인 종친부(宗親府) 건물이 있다.

사간동은 조선시대 사간원(司諫院)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동십자각(東十字閣)이 경복궁 동문 앞에 있다.

문화재로는 번사창(서울유형문화재 51), 삼청동의 등나무(천연기념물 254), 삼청동의 측백나무(천연기념물 255), 종친부(서울유형문화재 9), 경복궁 동십자각(서울유형문화재 13)이 있다.





### 1. 남녀노소, 동서남북을 이어주는 공감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마음 한 구석에서 골목길에 대한 추억과 따듯함을 꿈꾼다. 누가 보더라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훈훈한 내용과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

### 2. 생생한 현장 인터뷰가 한 가득

**골목**마다 그 **골목**이 형성된 배경과 역사는 모두 다르다. 그곳에 살고 있는 토박이들의 과거 이야기와 변화된 현재의 모습에 대한 흥미진진한 증언들을 그대로 옮겼다.

### 3. 같은 장소에서 떠나는 과거로의 여행

이야기를 알면 알수록 커져가는 옛 골목길 모습들에 대한 궁금증. 과거 사진을 함께 수록해 호기심을 해결해주고 더욱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선사한다.

### 4. 알짜배기 즐길 거리 상세 안내

그 곳에 직접 갔을 때 머뭇거림 없이 무엇을 먹고, 어떤 것을 보고, 어디서 쉬어야 할지 척척 찾아갈 수 있는 정보가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 언제 누구와 함께 가더라도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골목 여행을 끝까지 책임진다.

### 5. 찾기 쉽고, 보기 쉬운 친절한 지도 & 지하철 노선도

직접 발로 뛰면서 제작한 테마 일러스트가 담긴 지도. 필요 없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고 한 눈에 들어오는 길과 보기 쉬운 아이콘을 사용해 완벽한 골목길 안내를 도와준다. 또 각 골목길에 해당하는 지하철역을 알기 쉽게 표시한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있어 더욱 편하게 골목길을 찾아갈 수 있다.

### 6. 저자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숨은 명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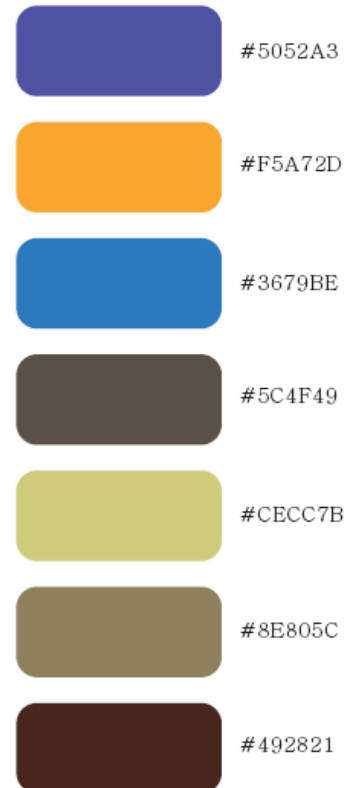
2년 동안의 취재 시간 동안 저자를 사로잡았던 골목마다의 숨은 장소와 사람들. 언제나 한 자리에서 외지인들을 맞아주는 그들을 완전 공개한다.

### 7. 완벽 숨 가이드 481선

**골목길**에 대한 모든 숨 정보가 한 곳에서 쏟아진다면? 골목길마다 상호와 전화번호 외에 간단한 메뉴와 가격이 담긴 숨 정보를 따로 정리해 미리 나만의 골목길 탐방 코스를 짤 수 있게 했다. [인터파크 제공]



사진촬영 및 글: 류 혜진 (트렌드 리서처)  
칼라 및 비주얼 맵핑: 이 순영 (트렌드 전문가)



## 평일과 주말, 낮과 밤의 모습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삼청동

삼청동에는 대사관, 감사원, 헌법재판소, 한국금융연수원 등 공 기관들이 자리잡고 있고, 선재미술관, 국제갤러리 등 대기업 문화 기관이 들어서 있으며, 경복궁, 창덕궁과 같은 주요유적지도 인접해있다. 삼청동의 평일은 낮 12시면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는 삼청동 맛집 문화는 좁은 골목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전통음식에서부터 카페, 유럽풍 파스타, 와플 등을 위주로 음식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삼청동의 주말은 일반인들의 인파로 거리를 메워 유동인구가 하루 10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다. 상업지구로 출발하지 않았던 이 소규모 지역 곳곳에 특색 있고, 재미있는 샵들이 들어섰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삼청동이란 곳에 도착하면 마치 도시 속의 보물섬을 찾아 나서듯 탐험하도록 하는 흥미로운 미지의 지역과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는 그곳을 도시 속의 보물창고라 부른다.



Salvage in the city :

## Antique-outdoor in Samchung dong

엔틱-아웃도어, 삼청동

사진촬영 및 글: 류 혜진 (트렌드 리서처)  
칼라 및 비주얼 맵핑 : 이 순영 (트렌드 전문가)



\*Color r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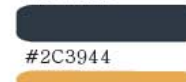
#8F4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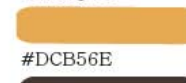
#97817C



#C87A5F



#2C3944



#DCB56E



#C1CDD5



#7E7F7A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All Reserved. 2009

2000년에서 2003년 사이 한국 시장에 엔틱 붐 (antique boom)이 일면서 럭셔리 개념으로 출발함. 지금은 럭셔리가 일상 생활 속에 들어가있다.

그때는 몇몇 사람들의 독특한 취향이 부각되면서 출발하였다.

외국에서 베틀시장 - 바잉 (buying)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와 실내 장식의 도구로 쓰여지던 엔틱가구, 소품이 이제 거리의 디스플레이용으로 카페, 샵의 외부 장식으로 쓰여지고 있다. 엔틱이 스트리트화?되면서 기존 개념의 탈피가 밖에서 보는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유발시켜, 샵 내부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럭셔리 개념의 엔틱 소품들이 모던과 이국적 정취와 만나 새로운 분위기 연출이 시도되고 있다.



Salvage in the city:

**EXOTIC** in Samchung dong

에조틱, 삼청동

사진촬영 및 글: 류 혜진 (트렌드 리서처)  
칼라 및 비주얼 맵핑: 이 순영 (트렌드 전문가)

## \*Color range



#43250F



#A65C62



#E0DBC9



#A39070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All Reserved. 2009

엔틱, 핸드크라프트(handicraft), 월페인팅 (wall painting)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다양한 문화를 표현하는 내부공간은 에스닉 하면서 엘레강스한 느낌으로 주로 여성을 타겟으로 한 패션 샵 내부 인테리어에 활용되고 있다. 붉은 신발을 벽면 중심에 크게 그려 넣은 구두 샵을 상징하는 그림은 마치 꽃을 모티브로 하여 구두를 표현한 듯하다. 가까이 보면 핸드 크래프트적인 붓 터치가 그대로 살아있지만, 주위에 진열된 여성의 상징인 매끈한 힐과 믹스 앤 매치되어 독특한 느낌을 준다. 엔틱 거울의 곡선, 금색 코팅은 오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Salvage in the city :

## ORIENTAL CHIAROSCURO in Samchung dong

오리엔탈 키아로스큐로, 삼청동

사진촬영 및 글: 류 혜진 (트렌드 리서처)  
칼라 및 비주얼 맵핑: 이 순영 (트렌드 전문가)

\*Color range



#D19A7B

#7B938C

#E0DBC F

#A9ABAC

#A39070

#26211B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All Reserved, 2009

### 오리엔탈 판타지 – 키아로스큐로 효과 Oriental Chiaroscuro color

삼청동의 위치적 조건은 서울의 최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북촌 한옥마을을 인접해있으며,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북한산과 한옥 지구가 끼어있어, 법적으로 서울의 상업개발과 격리된 지역이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오래된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삼청 공원, 북악산을 둘러싼 자연과 접해있는 고즈넉한 옛날 길이 그대로 살아있는 길의 정취가 사람들에게 한국적이면서도 이국적인 느낌을 들게 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하더라도 주민들이 중심이 되었던 지역이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삼청동의 상업화가 보도되면서 음식점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는 카페, 상점들의 이미지 메이킹이 진행



되면서 서울디자인거리로도 지정되었다. 삼청동으로 들어서는 입구에는 경복궁과 국제갤러리 사이의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있고, 메인 거리 끝자락에는 북악산과 삼청공원 등이 있어 자연과 접해있어 도심 속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청와대 외 각종 대사관, 고위정치기관들이 위치하고 있어, 법적으로 개발이 묶여있다는 것이 이 지역의 개발과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있어, 고층 건물을 찾아볼 수 없고, 한옥과 울퉁불퉁한 골목길에서 오래된 한국적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조건이 삼청동길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쳐, 기와, 나무대문, 연필과 붓글씨로 거리를 표현하고 있다. 한국적 표현과 더불어, 오묘하게 결합된 외국 문화는 정체성의 혼란이 아닌, 또 다른 예술과 문화를 만들어내어 신비롭고 판타지 (fantasy)한 구성으로 거듭나고 있다. 재료와 표현효과, 패턴 등에서 다양한 문화가 결합되어 오리엔탈 판타지를 이끌어내며, 현대 그래픽적 효과보다 핸드크래프트 요소를 가미하여 자연스럽고, 개방적인 느낌으로 표현되고 있다.



핸디크래프트 효과 - 아티 무드로 전달하는 메시지

한국적 이미지로 만들어진 픽토 (picto), 핸드크래프트 삼청동 지도는 마치 오래 전 보물지도와 같은 느낌이다. 시멘트 벽면에 백묵을 사용하여 손으로 자유롭게 쓴 한편의 시는 소피스틱 (sophistic)한 칼리그래피(calligraphy)를 표현하고 있으며, 오래된 양피지 종이를 사용한 그림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어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가진다. 전체적 컬러는 중간 톤의 낡고, 오래된 느낌을 준다. 삼청동의 한국적 풍경과 이국적 문화의 결합이 현대인들에게는 낯선 매력으로 다가온다. 위치와 지형을 변형시키지 않고, 땅의 형태와 흐름을 그대로 살려 집들을 앉혔기 때문에 한옥과 자연, 유럽풍 카페와 샵이 더불어 조화된 모습이 더욱 부각되어 낯설지만 매력

Salvage in the city:  
**METONYMY in Samchung dong**  
 환유, 삼청동

사진촬영 및 글: 류 혜진 (트렌드 리서처)  
 칼라 및 비주얼 맵핑 : 이 순영 (트렌드 전문가)



\*Color range

#896467	
#846E60	
#AAAF7D	
#C78D73	
#5A636F	
#B8C6CB	
#AAA3A3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All Reserved, 2009

적이고, 자연스럽지만 가꾸어져 있는 다양한 문화의 결합이 이루어져, 이국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한다. 곧게 뻗어 있는 아스팔트 길이 아닌 굽이굽이 흐르는 땅에 구불거리게 낮게 지어진 집들, 한눈에 모든 광경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건너편, 또는 숨어있는 골목에 대한 궁금증과 상상력을 불러 일으킨다. 이것이 한국의 풍경이며, 한국적 미의 정체이기도 하다.



Salvage in the city :

**TRAKER in Samchung dong**

트레커, 삼청동

사진촬영 및 글/ 비주얼 맵핑: 류 혜진 (트렌드 리서처)  
칼라 : 이 순영 (트렌드 전문가)

\*Color range

#446E7F

#B52C26

#4A2B2C

#DE9993

#293681

#E82171

#CCC48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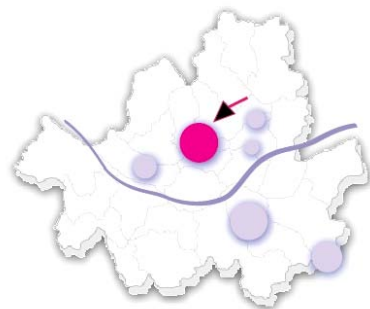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All Reserved. 2009

삼청동을 여행하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국동에서 삼청 파출소를 지나 삼청동 메인 골목으로 들어오기까지 마을버스 또는 걸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자동차와 대형 쇼핑몰이 아닌, 걷는 문화와 작은 규모의 카페와 샵들로 슬로우 라이프 (slow life)를 제안하는 지역이 삼청동이다. 카페와 샵 들을 둘러보면, 주로 상점 주인들의 개인적 컬렉션을 진열,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여행지에서 바잉 상품들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지 상품을 사는 것을 넘어서 주인의 여행 여담까지 들을 수 있으니, 소비자에게는 또 다른 상상력을 제공하고 있다.

요즘 삼청동 거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큼직한 DSLR 카메라를 하나씩 들고 삼청동을 누비고 있다. 오래된 골목, 오랜 시간이 축적된 흔적들을 만날 수 있는 풍경이 곳곳에 숨어있어 최신 샷들과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샷과 예쁜 카페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굽이진 골목길 사이의 오래된 한옥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광경도 만날 수 있다. 한국적 오래된 풍경은 도시인들에게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삼청동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은 위치와 지형이다. 번잡스러움을 피하고, 자연과 도심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강남의 압구정과 신사동, 청담동은 패셔니스타들이 주를 이루고, 홍대는 미술과 음악, 스트리트 문화의 성향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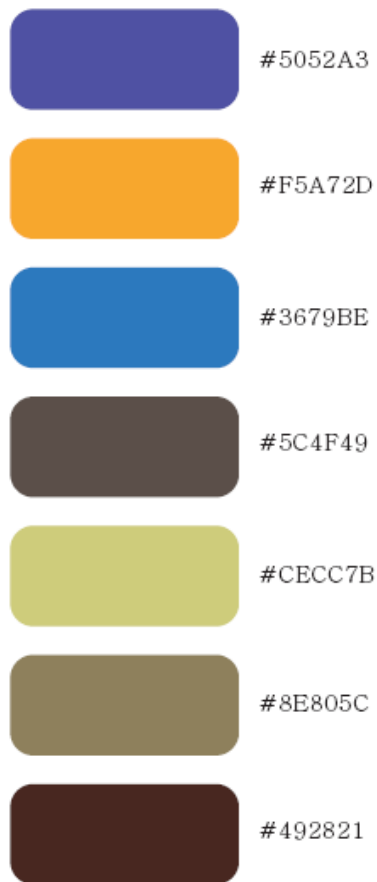
로컬 컬러 파노라마

# Local color panorama

지역: 삼청동

키워드: **Salvage in the city**

# Salvage in th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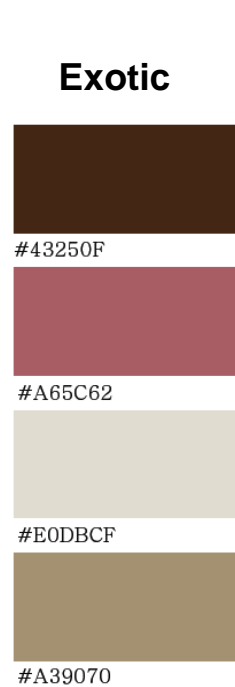


## Antique-out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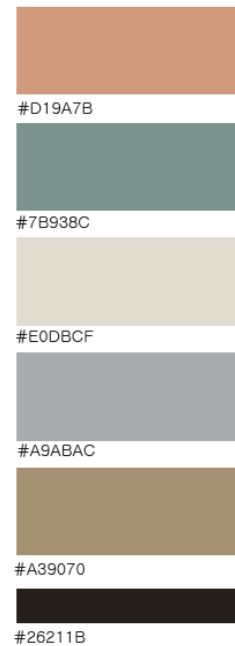
### Trekker



### Exotic



### Oriental chiaroscuro



### Metonymy

